



권오을 <바른정당> 최고위원

# 권오을이 꿈꾸는 세상

## 서민이 따뜻하고, 부자가 떳떳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

인터뷰 권오을 바른정당 최고위원/ 경북도당 위원장

(경교공파 35세)

대담자: 권오을 사무총장

권오을 사무총장(이하 총장): 평생 정치를 하셨는데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요.

권오을 최고위원(이하 최고위원): 바른정당 최고위원이자 경북도당위원장으로 지난해에 포함 지진현장을 유승민 대표를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이재민 현장을 둘러보니 산답이 다 된 임신부가 있어서 포항 당원 중에 의사가 있어서 병원을 주신 해 주었습니다.

정치인의 대민활동이란 이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하나라도 해결해 주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 아닌가 합니다.

'바른정당'이 처음에는 따뜻한 보수를 내걸어 국민의 기대가 상당히 높았는데, 지난 대선 후 탈당사태부터 국민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나라에 제대로 된 중도우파 정당, 공동체에 책임지는 정당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곧 '바른정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해서 제자리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대구가톨릭대학에서 초빙교수로 강의를 했고, 지금은 한국외국어대학에서 초빙교수로 강의하고 있어 늘 바쁩니다.

총장: 위원장님이 꿈꾸는 세상은 서민이 따뜻하고 부자가 떳떳하고 국민이 공평하게 행복한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봄 가을 등록금은 소 팔고 가을 추수해서 내는데 다달이 하숙비가 안 올라옵니다. 그때부터 도농간 빈부 격차 참 심하구나 생각했습니다.

젊어서는 솔직히 시골에서 출세하려고 정치를 시작했지요. 조금 철이 들게 되면서 뽐내고 있는 공동체를 생각하며 '세상을 바꿔야겠다.', '서민들이 따뜻하고 부자들이 떳떳하고 국민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했지요.

'이 시점에서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기성세대는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젊어서 혼자서 돈 벌어서 집사고 살 수 있었는데 아들 손주세대는 부모 도움 없으면 혼자

돈 벌어 결혼하고 애 키우고 집 사서 못 산다.', '서민들을 배려하면 고맙다고 질할 줄 알아야 하고, 부자는 돈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내고 떳떳하게 명예 선택하게 가르쳐야 한다. 국민 전체는 너와 내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어울려 행복하다는 것 가르쳐줘야 한다.' 그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정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장: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면 도박으로서 활동하셔야 하는데, 안동 도청시대를 맞아 도정(道政)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요.

최고위원: 우리 어릴 적에는 경상북도 인구가 550만 정도였고, 그때 경기도 인구는 400만 정도였는데 웅도 경북, 모든 면에서 이끌어 가는 지위에 있었으니,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진취적이었고, 경제적으로는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차 있었습니

다. 문화적으로는 유교의 전통을 바탕으로 약동하는 신생국가에 힘이 넘치는 그런 경북이었어요. 지금, 정치는 침체되어 있고 일당독주를 30년이나 하다 보니 정치에 경쟁력이 없어서 버리다보니 그 지역 정치인의 중앙에서의 발언권이 약화되고 낙하산 공천으로 국회의원, 시장, 군수를 하니가 도정, 시정에 관심이 없으니 이런 문제를 이제는 과감하게 개혁하지 않으면 앞으로 경북은 한국에서 설자리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도정은 관치도정이고 참된 지방자치가 아니니 주민과 도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관이 모든 걸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하고 난 뒤 선출직으로 나서기 때문이고, 도백이 되면 혁신 개혁도 아니고 "도정 혁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도민이 주인이 되는 입장에서 도민이 요구하고 주장하고 쟁취하는 분위기를 진작시킬 계획입니다.

<안동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는 새천년 들어 2000년대에 북부수도로 하지 말고 한국문화수도도 하자고 제가 주장했고, 6년 후에 안동시장이 특허권을 등록하면서 안동시장이 주장하기 시작했지요.

'정신문화'란, 좋은 전통은 이어받되 안동의 조상들이 임금에게 시시비비 가리는 상소를 끊임없이 올렸으니 맞으면



<왼쪽 권오을 최고위원 오른쪽 권오을 총장>

맞다고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주장해야 민주사회의 성숙도가 높아지고 그런 정신으로 중앙정부에 대해 요구할 건 요구하고, 협치할 건 협치하면서 지역정치, 경제, 문화력을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총장: 최고위원님은 고려대 정치학회장, 국회의원 3선, 국회사무총장을 역임하시는 등 국가경연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시는데 도정에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이신지요.

최고위원: 지방정부 재정 자립도는 30% 안팎이지요.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지 않으면 어렵고 저는 20년 동안 중앙에서 활동한 재산이 곧 '인맥'이 있지요. 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도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경북에 접맥시켜야 합니다. 첫째, 경북의 자원은 땅이 제일 넓다는 데 있고, 둘째는 많은 문화자원과, 셋째는 빛나는 조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소들을 엮어서 발전 방향을 잡아야 하며, 무엇보다 무너져 내리는 구미(龜尾) 기업도시를 되살리는 문제와 포항(浦項)을 철강도시에서 탈피하여 종합기업도시와 문화도시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지요. 또한 북부지역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이 시급하니 농업을 기반으로 하되 풍부한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하여 농식품을 원료로 하는 농식품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합니다.

자체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대도시, 중국, 동남아로 진출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왜 안하느냐? 기업 마인드도 부족하고 들어오는 기업에게도 메리트가 없으니 상선으로 모셔도 올라 말까 하는데 좀 취급하니 어느 기업이 들어왔겠어요. 생산자 계층인 기업인을 우대하고 학교 선생님들을 우대해주고 선출직 행정공무원들은 진짜 봉사자로 음의 위치로 재설정하고 그 과정에서 뭐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장: 안동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동을 본관으로 하는 안동권씨가 가장 중시해야 할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최고위원: 안동권씨 후손으로서 조상들에게 가장 고마워해야 할 것은 권가로써 자긍심이 있다는 것이니 조상들을 둘러보면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큰 흔적을 남겼지요. 특히 고려초에 안동이 등장하는데 안동이기 전에는 고창이었지요.

권가가 1088년이니 안동의 1100여년의 역사는 안동권씨의 역사와 똑같고, 곳곳에 조상의 손길과 숨결이 숨어 있으니 그만큼 소중하지요. 권가 후손으로서 조금 아쉬운 것은 벼슬한 분은 참 많은데 학문을 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으니 '벼슬은 당대요. 글은 천년 만년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선출직 대통령, 국회의원 등도 좋지만

학자와 문화예술 분야 인재를 키우는데 배려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장: 지방분권이 이슈화되고 있고, 지방분권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는데 지방분권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최고위원: 지방 사람들이 오해소지가 있지만 제일 걱정하는 것은 지방분권은 지방 사람들이 이끌어 가야 하지만, 절대적으로 돈이 부족하고 더 문제되는 것은 지역적으로 인문군을 체계적으로 키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연세 드신 분들만 고향을 지키고 있으니 도시생활, 직장생활 끝나고 60이 넘으면 고향 가서 봉사자로서 역할을 하는 그 지역 출신으로 충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늦게나마 지역공동체를 경험하고 말년을 보내는 장점도 줄 수 있지요. 이래야 지방분권이 되고 우선은 사람문제, 다음은 돈 문제이지요. 돈은 지방에서 안오오니 국세를 지방세로 한다고 해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해질 것이고 쉽게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향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정 부분 고향을 위해 쓸 수 있게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인데 외국에는 잘 시행되고 있어요. 진정한 '수구초심'이란 이런 것이겠지요.

프랑스는 1980년대 지방우대를 헌법에 넣었는데 인재할당, 직장할당제, 재정할당제 할 때 위험 시비는 안 걸립니다. 지방우대 조항은 꼭 넣어야 합니다.

총장: 최고위원님은 편하게 전화하고 함께 소주한잔 할 수 있는 소통되는 서민국회의원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정치에 있어서 소통이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소통해 오셨는지요.

최고위원: 젊어서 일찍 의원이 되고, 35세에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일찍 출세한 셈이죠. 그것은 인사 잘하고 얘기 잘 들어서 된 것인데, 젊어서 3선 되니까 귀도 멀어지고 눈도 어두워져서 지역에서 조금 민심을 잃었다고 봐야지요. 10년 야인생활 하면서 다시 보통 시민의 위치에서 세상을 보게 되니 생색내기 위해 보여주기 위한 것 보다 실질이 더 중요하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많은 민원인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대부분 해결하기 힘든 것들이니 그래서 제 역할은 첫째로 그 어려운 문제를 일부러

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지는 것이이지요. 두 번째는 그 분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이고 속상한 것 말이라도 속 시원하게 해원시켜 드리는 것이지요. 소통의 역할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장: 최고위원님 좌우명은 어떤 것인지요. 최고위원: 제 좌우명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자"로 거창한 것보다 실천이 우선이지요.

총장: 자제분들은 어떻게 되십니까. 최고위원: 아들이 둘인데, 큰 아들 권경목은 카이스트에서 박사후 마치고 버클리에서 박사후 과정(포닥)을 밟고 있고 둘째 권경록은 현재 홍콩시립대학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에 있고 둘다 기호입니다.

현역일 때는 진짜 몰랐는데, 40대에 3선 해서 천년만년 잘 될 줄 알았어요. 쪽이렇게 갈 것 으로 착각했다고나 할까요. 50대 중요한 시기에 대부분을 아인오도 보냈고 이제 60대에 들어서니 가정사도 일찍 계획을 세워 준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 이제 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으니 새로 시작하는 초심으로 돌아가야지요.

총장: 100만 족친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고위원: 권가로 태어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자랑스러움에 좀 더 보탬이 되게 각자 노력했으면 합니다. 한국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조상의 손길과 숨결이 숨겨져 있고 어딜 가도 안동권씨 양반, 대단한 성씨라는 사회적 명성이 걸맞게 조금이라도 사회에 기여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안동에서 도의원, 국회의원으로 몸을 일으킬 때 권가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고, 권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도와 주셨음에도 저한테 부탁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분단된 조국에서 고려통일의 위업이 권형 시조의 병산전투의 승리에 있고 그로 인해 고구려가 우리의 역사 판도로 확인되고, 고려말에는 공민왕이 파천하여 임시수도로가 되었고, 임시정부 국무령(국가원수) 이상을 선선의 고장이니 안동은 명실상부하게 '정신문화'의 수도인 것입니다.

# 가 나 기 획



대표 권혁준 02)741-7191~3 / 010-5281-7191

집안 어른들께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습니다.

SMU

## 세명 100년의 대거성정을 향한 도전과 혁신!



KD 온송그룹 | 경기고속 | 대원고속 | 대원여객 | 대원관광 | 대원교통 | 진영여객 | 경기버스 | 경기운수 | 경기상운 | 대원대학교  
대원운수 | 대원버스 | 평안운수 | 경기여객 | 명진여객 | 세명고등학교 | 세명컴퓨터고등학교 | 성희여자고등학교  
교육부 학부교육혁신사업(비선) "잘 가르치는 대학" 선정 (2010~2019년) | 교육부 대학혁신사업(CK) 선정 (2014~2019년) | 고용노동부 "대학창조발전사업" 사업대학 선정 (2015~2019년)  
한국대학교육평가원 사업 "대학가치평가인증" 획득 (2014~2019년) | 한국대학교육평가원 사업 "한국교육평가인증" 획득 (2014~2019년) | 한국대학교육평가원 사업 "한국교육평가인증" 획득 (2016~2019년)  
SMU 세명대학교 | 주소: (27136) 충북 제천시 세명로 65(산림동) | 입학문의: 입학관리처(☎ 043-649-1170~1179) | 홈페이지: www.semyung.ac.kr